

# 영어 AND 접속구문과 한국어 ‘-고/-와’ 접속구문에 대한 비교연구\*

박기성

(부산대)

**Park, Kiseong. (2016). A Comparative Study on the AND-constructions in English and Their Corresponding ‘-ko/-wa’ Constructions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4(2), 183-19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English AND conjunction constructions and their corresponding ‘-ko’ and ‘-wa’ constructions in Korean in terms of NP-level and clausal level conjunctions. The following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First, it is argued that the juncture-nexus theory and Interclausal Relations Hierarchy in RRG are needed to explain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s in both English AND constructions and Korean ‘-wa’ and ‘-ko’ constructions. Second, it is claimed that English NP-level AND constructions have the features of AND-languages, while Korean ‘-wa’ constructions have the mixtures of AND-languages and WITH-languages. It is also claimed that both coordination and cosubordination junctures are realized in NP level English AND constructions and Korean ‘-wa’ constructions. The differences in juncture types are argued to be related to the semantic effects such as joint vs. split readings and collective vs. distributive readings. Third, it is claimed that English AND constructions in clausal level typically involve coordination junctures, while Korean ‘-ko’ constructions involve both coordination and cosubordination junctures under the conditions of sharing the same subjects and the same tenses. The cosubordination junctures in Korean typically involve the semantic effects such as cause-effect relations and temporal sequences.

**주제어(Key Words):** 등종속(cosubordination), 의미역지시문법(RRG), 정척-넥서스(juncture nexus), AND-언어/WITH-언어(AND-languages/WITH-languag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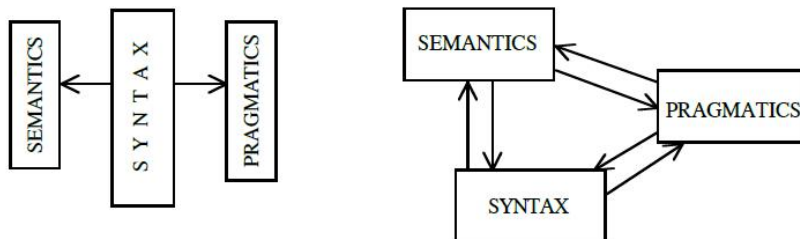
\*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 지원에 연구되었음.

## 1. 머리말

접속은 전통적으로 대등접속(coordination)과 종속접속(subordination)으로 나누어지며, 이 현상을 통사적 관점과 의미적 관점으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통사적 관점과 의미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Culicover and Jackendoff (1997)의 ‘Semantic Subordination Despite Syntactic Coordination’이라는 표제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관점의 분석을 결합시켜보려는 시도도 있었다. 본 연구는 영어 대등접속구문 and에 의한 접속 중 명사구 접속과 절단위 접속의 문제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재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명사구 단위 ‘-와’ 접속과 절 단위 ‘-고’ 접속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의를 의미역지시문법(Role and Reference Grammar: 이후 RRG)에서의 접속이론인 정처-넥서스(juncture-nexus: 이후 JN)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영어의 JN에 대한 통사의미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명사구 단위 접속과 절단위 접속에서의 JN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명사구 단위 접속유형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동종속(cosubordination) 접속유형이 사용되지만, 의미적 효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인다. 또한 영어와 달리 한국어 절 단위 접속유형에서는 등종속 접속 유형이 동일 시제와 주어의 요건아래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RRG 접속이론에서의 통사와 의미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절간관계위계(interclausal relations hierarchy: 이후 IRH)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접속유형과 의미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통사 중심 혹은 자율적 통사 기반 설명보다는 의미가 통사접속을 동기화시키는 통합적 접근을 선호하는 RRG이론의 틀을 사용한다. Jackendoff(2002)가 지적하고 있듯, 언어 이론은 아래의 표와 같이 통사 중심적 이론과 평행 모듈 이론으로 구분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 Van Valin(2014: 2)



왼쪽 그림의 이론은 Chomsky(1957)의 “Syntactic Structures” 이후 Chomsky의 줄곧 논의된 입장이며, 통사론에서 의미론과 화용론이 파생된다고 여긴다. 오른쪽 그림의 이론

은 RRG에서 논의된 입장이며, 문법 모듈별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초점인 영어 AND 접속구문과 한국어 대응구문은 특히 이러한 모듈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여, RRG이론의 설명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RRG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편 접속의 단위는 매우 다양한데, 영어의 형태소 접속에서부터 절 접속까지 매우 다양하며, 한국어의 경우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등접속의 단위 중 소위 말하는 명사구 단위 접속과 절단위 접속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명사구 대등접속구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영어 AND 명사구 단위 접속과 한국어 '-와' 명사구 단위 접속을 비교하며, 이 두 명사구 단위 접속 유형을 범어적 AND-언어와 WITH-언어의 특성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명사구 단위 접속 구문이 모두 대등접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RRG의 JN의 관점으로 볼 때 다양한 접속 유형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절 단위 AND 구문과 '-고' 구문을 JN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 2. 접속 유형과 JN

먼저 AND 구문이 유발하는 등위접속(coordination)의 일반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Haspelmath(2007)는 두 동일 요소의 결속과 관련된 이원적 등위접속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형론적 관점을 제시한다(Haspelmath 200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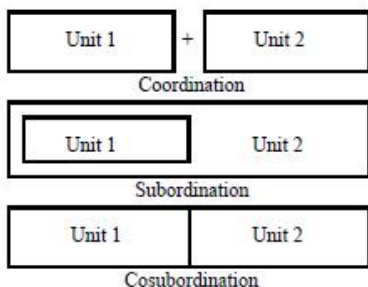
- |     |                   |  |
|-----|-------------------|--|
| (2) | a. (asyndetic)    | A B  |
|     | b. (monosyndetic) | A co-B (prepositive, on second coordinand)<br>A-co B (postpositive, on first coordinand)<br>A B-co (postpositive, on second coordinand)<br>co-A B (prepositive, on first coordinand) |
|     | c. (bisyndetic)   | co-A co-B (prepositive)<br>A-co B-co (postpositive)<br>co-A B-co (mixed)   |

논리적으로 9가지 유형이 가능하지만, 범어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유형은 'co-A B' 유형이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단일연결어(monosyndetic) 유형에 속하는 공통성을 갖지만, 영어의 경우 'A co-B' 유형에 속하고, 한국어의 경우 'A-co B'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다양한 등위 접속 유형에 대한 RRG이론 내에서의 접속이론을 고려해 보자. RRG이론에서 복합문처리론은 정척이론, 넥서스이론, 그리고 IRH이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다. 먼저 정척이론에 대해 살펴보면 절(clause), 코어(core), 핵(nucleus) 정척의 세가지 정척유형이 존재한다. 핵이란 전통적 의미 개념에서의 술어와 상응하고, 코어는 논항과 술어로 이루어진 단위로, 그리고 절은 코어와 주변부(periphery)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Van Valin 2005). 넥서스란 전통적 개념의 등위접속과 종속접속에 상응하는 개념이지만, RRG이론에서는 등종속이라는 접속유형을 추가하고 있다. 이 세가지 넥서스 개념을 도표로 보이면 (3)과 같다. 등위접속에서는 독립성을, 종속접속에서는 내포의 개념을, 등종속에서는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모두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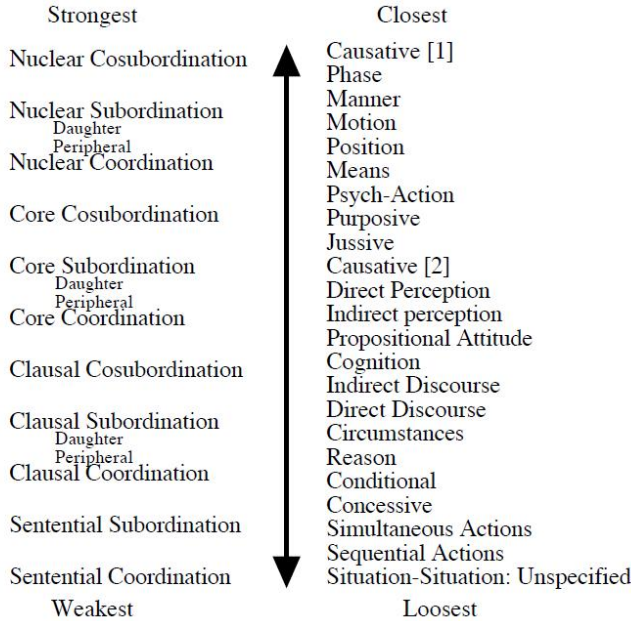
(3) 넥서스 유형(Van Valin 2005: 188)



따라서 3가지의 정척과 3가지의 넥서스가 결합하면, 9가지의 가능한 JN 유형이 생성되지만, 언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의 총계는 다르다. 영어의 경우 7개, 한국어의 경우 9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ang 1994; Van Valin 2001).

한편 접속이론에서 의미부와 JN 이론과 같은 통사부는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즉 접속 설명에 있어서 의미에 기반을 두고 통사 접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IRH로 표현된다. 다음을 보자.

(4) RRG의 IRH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의 요건이 충족되는 등중속 절단위 접속의 경우, IRH상의 이유, 조건 등을 나타내거나 동시적 행위를 나타내고, 이러한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대등 절단위 접속의 경우는 연쇄적 행위이거나, 가장 느슨한 ‘상황-상황’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 3. 명사구 단위 접속구문

본 장에서는 먼저 영어와 한국어 명사구 접속을 AND-언어와 WITH-언어 구분과 관련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의를 바탕으로 명사구 단위 접속의 JN 유형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는 AND-언어에 속하지만, 한국어는 WITH-언어와 AND-언어의 혼합형에 해당된다는 점을 보이고, 이러한 유형적 차이로 인해 영어에서 나타나는 의미적 현상이 한국어 대응구문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 3.1 명사구 단위 접속과 AND-언어/WITH-언어

언어마다의 명사구 대등접속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 소절에서는 먼저 언어유형론적

차이를 AND-언어와 WITH-언어 구분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Stassen 2000). AND-언어란 대등접속구문을 사용할 때 영어와 같이 별도의 대등접속 표지어인 and를 갖는 경우를 말하며, WITH-언어란 별도의 대등접속 표지를 갖지 않고 공동격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송경안과 송진희(2006)에 따르면, 영어 독일어 등 유럽언어들이 대표적인 AND-언어이고, 사모아어 중국어 등이 WITH-언어에 속한다. 따라서 영어 대등접속구문의 경우 AND-언어에 속하며, 한국어는 WITH-언어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어 명사구 대등접속구문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소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하나의 견해는 두 유형의 혼종적 성격을 인정하는 이론이며, 다른 견해는 WITH-언어 견해이다(송경안과 송진희 2006). 한 언어 내에서 명사구 대등접속구문을 두 가지 유형의 대등접속 유형을 보여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러시아어가 여기에 속한다. 러시아어에서는 명사구 대등접속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Feldman 2002).

한편 한국어의 명사구 단위 접속의 경우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Haspelmath(2004)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한국어는 WITH-언어의 유형에 속한다고 본다. 공동격 표지는 언어보편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사구 단위 접속에서 이 공동격 표지를 쓰느냐 아니면 별도의 접속표지가 사용되느냐에 따라 언어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 견해는 Stassen(2001)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한국어는 AND-언어와 WITH-언어의 중간단계라고 본다(송경안과 송진희 2006). 즉 한국어의 경우 명사구 접속에서 공동격 표지 '-와'가 사용되지만 명사구 대등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와'는 대등접속 두 유형의 문법화 중간단계 혹은 혼합형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송경안과 송진희 2006: 91).

- (5) a. 철수와 영희가 극장에 갔다.  
b. 철수는 영희와 극장에 갔다.

두 개체가 하나의 사건에 참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은 위의 (5a)와 같은 대등접속 전략과 (5b)와 같은 공동격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영어의 경우 공동격 전략을 위해서는 전치사 with를 사용하고, 대등접속을 위해서는 접속어 and를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두 전략을 위해 모두 '-와'를 사용하여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등접속 표지어로서 '-와'는 내재적으로 WITH-언어 표지어로서의 기능을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한국어 명사구 단위 접속의 언어적 형태로서 '철수 그리고 영희', '영이, 순이', '영이하고 순이' 등이 사용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명사구 단위 접속 표지인 '-와'를 중심으로 명사구 단위 접속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어 대등접속구문이 혼합형에 속한다는 한 증거는 WITH-언어 유형으로 간주되는 중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6) a. Lu            Wenyi    gen        wo        qu        hua-chuan  
       Lu            Wenyi    with      1sg      go        row-boat  
       'Lu Wenyi and I went rowing boat'  
       'Lu Wenyi went rowing boat with me.' (Stassen 2000: 22)
- b. 철수와 영화-는/가 노를 저어 갔다.

WITH-언어 유형을 갖는 (6a)의 중국어 예에서는 대등접속 해석과 공동격 해석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혼합형 유형을 갖는 (6b)의 한국어 예에서는 중국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으며, 대등접속 해석만 존재한다. Li and Thompson(1976)의 분류상 한국어는 주제현저(topic-prominent) 언어로서 주제 요소가 먼저 언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철수와 영화' 전체가 일반적으로 주제 겸 주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어, '철수'가 공동격 요소로 해석되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어 대등접속의 경우 중국어와 같은 전형적인 WITH-언어의 경우와는 차이점이 있으며, 다소간 혼합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 명사구 단위 '-와'구문은 영어와 달리 AND접속유형의 특성과 WITH-언어의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어, 명사구 단위 AND접속이 나타내는 접속유형과 의미적 효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3.2 대등접속구문 JN 분석

본 절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명사구 단위 JN 관계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명사구 단위 접속에서 JN 접속이론을 도입하는 이유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통사기반적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명사구 단위 접속은 외관상 보이는 것보다 복잡한 의미적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 기반적 통사 접속이론인 JN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등구문접속과 관련된 정처 개념은 명사구 수준과 코어 수준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본다. 먼저 Van Valin(2005: 221)이 제시하는 명사구 내 JN에 관해 살펴보자.

#### (7) NP의 정처-넥서스

Level of juncture	Nexus type(s)	Example
NP	Coordinate	the tall woman and the happy man
	Cosubordinate	the tall woman and happy man
	Subordinate	Chris, who loves soccer
CoreN	Cosubordinate	the order from the general to attack the city
	Subordinate	the rumour that Fred saw a UFO
NuclearN	Cosubordinate	duckhunter, woodchopper
	Subordinate	the woman who left the party early

(7)의 표 가운데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접속의 유형은 명사구와 명사구의 접속 유형으로서, 이 유형 가운데 AND접속과 관련된 유형은 등위접속과 등중속접속 유형 두 가지이다. 등중속접속 유형에서는 접속된 두 가지 ‘형용사+명사’ 요소가 한정사 the를 공유하고 있다. 반면 등위접속유형에서는 한정사 the가 각자의 명사구 내에 독자적으로 실현되고, 명사구 간의 공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명사구 등중속접속 유형은 촘스키 통사론에서의 N-bar의 설정과 연관성을 갖는다. 영어와 유사하게 한국어에서도 두 가지 유형의 접속이 가능한데, ‘저 멋진 남자와 이 금발 여자’의 경우와 같이 등위접속 뿐만 아니라, ‘저 키 큰 여자와 행복한 남자’와 같은 명사구 등중속접속도 또한 가능하다.

두 가지 접속 유형 모두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의미적 효과는 집합적(collective) 해석과 배분적(distributive) 해석의 중의성이다. 즉 접속유형과는 무관하게 접속의 효과는 두 가지 중의적 해석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의성은 항상 나타나기보다는 접속 명사구와 공기하는 술어에 의해 예측가능하다. 즉 영어 ‘John and Mary slept’는 전형적으로 배분적 해석을 갖게 되어 각자가 잤다는 의미이며, ‘John and Mary met’에서는 ‘meet’라는 집합술어의 영향으로 대등접속 명사구 ‘John and Mary’가 집합적 해석을 갖게 된다. 한편 한국어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나며, 그 중의적 해석은 공기하는 술어와 화용적 문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해석의 중의성은 구체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화용론의 문제로 인식 가능하며, 많은 경우 문맥적 함축 현상으로 이해 가능하다.

한편 등중속접속 유형의 경우, 한정사 공유를 통한 ‘구성요소의 공유’라는 특성을 갖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공동해석(joint reading)과 분리해석(split reading)이라는 두 가지 해석의 중의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공동해석이란 명사구 AND접속구문이 한 개체의 두 가지 특성을 언급하는 경우이고, 분리해석이란 두 개체에 대한 언급을 의미한다(Heycock and Zamparelli 2005). 다음의 예를 보자.

- (8) a. my friend and colleague  
 b. 나의 친구이자 동료  
 c. 나의 친구와 동료

먼저 (8a)의 영어 등중속접속 표현은 두 가지 중의적 해석을 갖는다. 즉 my friend and my colleague에서 후행 명사구의 소유격 형이 생략된 분리 해석을 갖기도 하지만, ‘나의 친구이자 동료’라는 공동 해석을 갖기도 한다. 공동해석과 분리해석 모두 명사구 등중속접속의 형태를 갖는다. 이에 비해 (8a)에 대한 한국어 대응표현의 경우, 공동해석과 분리해석의 중의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고, 각기 다른 표현으로 대응하게 된다. 즉 공동해석의 경우 (8b)와 같이 ‘-이자’ 접속을 사용하게 되고, 분리해석의 경우 (8c)와 같이 ‘-와’ 접속으로 실현된다.



## 4. 절 단위 접속구문

한편 RRG에서의 절단위 접속의 표상은 절성층구조(layered structure of clause)로 표현되는데, 절성층구조는 의미적 기반을 둔 절 모형이라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절 대등접속 문제를 의미와 통사의 단일한 절성층구조 속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접속 문제와 관련된 양상은 통사부 및 의미부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IRH로 표현된다. 앞서 논의된 대로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의 요건이 충족되는 등중속 절단위 접속의 경우, IRH상의 이유, 조건 등을 나타내거나 동시적 행위를 나타내고, 이러한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대등 절단위 접속의 경우는 연쇄적 행위가거나, 가장 느슨한 ‘상황-상황’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범어적으로 볼 때 절 단위에서의 대등접속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첫째 대등 접속절의 접속관계를 통사적 관점에서 볼 것인지 혹은 의미적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다. 절 접속은 두 가지 관점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되며, 이 견해를 반영하는 대표적 표제가 영어 대등접속 and에 관한 논문인 Culicover and Jackendoff(1997)의 ‘Semantic Subordination Despite Syntactic Coordination’일 것이다. 즉 접속의 두 층위를 설정하고 두 층위의 접속 관계가 달라지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의 영어 예를 보자.

- (9) a. I went to the store and bought some whisky.  
 b. You drink another can of beer and I'm leaving.  
 (Culicover and Jackendoff 1997)

이러한 영어 예는 소위 말하는 상호사건관계(cross-event relation)를 나타내는데, Talmy(2000)와 조의연(2003)의 경우 이 상호사건관계의 영어 ‘and’의 경우 대등접속구문이 아니라는 의미적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강영세(2006)는 영어 and의 해석에 문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and해석의 화용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틀로서 사용하는 RRG의 JN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JN 측면은 통사층위에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9)의 예는 통사적 기제로서 등중속이나 중속의 특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등위접속구문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Talmy(2000)나 강영세(2006) 등이 지적한 의미 화용적 측면은 통사-의미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IRH로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Foley and Valin(1984)과 Yang(1994)은 서법을 공유하는 ‘언표내적함(IF)’라는 절간의 요소 공유가 있기 때문에, (9)의 경우를 등중속 넥서스로 간주하였으나, 문법범주의 구체적 실현을 나타내지 않은 IF 요소의 공유로 인한 등중속 넥서스의 설정은 등중속 유형 설정의 근거를 약화시킨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등중속 넥서스 설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시제 공유를 설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와 같은 예들은 IF만을 공유하고 있을 뿐 다른 문법범주 요소 공유가 나

타나지 않아 등위접속의 예로 간주한다.

한편 한국어에서 절 접속의 가장 흔한 경우는 선행절 동사에 접속 조사를 사용하여, 두 절을 연결하는 방법이다(Sohn 1999). 한국어 복합접속에 대해 이관규(1999)는 대등문 종속문 부사절을 상호 비교하면서 학자들의 견해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 구문이 모두 하나라는 견해, 대등문과 나머지 두 구문이 서로 다르다는 견해, 그리고 세 구문이 모두 다르다는 견해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접속에 대한 통사적 관점과 의미적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접속 조사 가운데 흔하게 사용되는 ‘-고’ 접속조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며, 전통적으로 ‘-고’ 접속은 대등문으로 인식된다.

한국어의 다른 접속어와 유사하게 접속어 ‘-고’에 의한 접속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유연성을 갖는다. 첫째, ‘-고’ 접속의 경우 다른 접속어와 유사하게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동일주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권재일 2012). 때때로 ‘-고’ 접속구문은 필수적인 동일 주어를 요구하지는 않기도 하지만, 대칭접속문이나 나열의 대등접속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머지 ‘-고’ 접속절은 동일 주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시제의존성의 유연성을 갖는데, 선행절은 시제를 갖지 않고, 후행절 시제에 의존적인 경우도 있고, 선행절이 후행절과는 독자적인 시제를 갖기도 하는 특성을 갖는다.

한편 김건희(2014)는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와 같은 통사적 기준과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여,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할 시 종속접속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한다.

- (10) a.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  
b. 꽃이 피고 새가 운다. = 새가 울고 꽃이 핀다.

김건희(2014: 12-123)

이러한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가 유지되는 (10a)의 예는 절단위 종속접속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에는 대칭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10b)의 경우는 ‘시제 공유, 주어 동일 지시’의 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대칭성이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10a)와 같이 ‘시제공유, 주어 동일 지시’ 등의 유지될 경우, RRG에서의 절간 요소의 공유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대등과 종속의 기능을 혼합적으로 갖는 등종속 넥서스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갖는다고 주장한다. 종속접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첫째 절이 독자적인 시제를 가질 수 있지만, (10a)의 경우 독자적인 시제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제공유’와 ‘주어 동일 지시’라는 공유 요소를 통한 등종속 넥서스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Yang(1994)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부의 ‘-고’ 접속구문이 등종속 접속유형에 관여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어 ‘-고’ 접속구문이 두 절 속의 문법범주 실현에 있어 유연성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다른 문법범주의 경우 두 절 간의 접속에서 독자적인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

시 공유되기도 한다. 먼저 Kwon (2004)에서 언급된 대로 RRG에서의 IF에 해당하는 서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후행절에 하나의 서법만을 허용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1) a. 철수는 소설책을 읽-(었)-고, 영화는 텔레비전을 보았다.  
 b. 철수는 편지를 쓰-(\*)다-고, 영화는 그림을 그렸다.

(11a)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절에서는 선택적으로 시제를 포함할 수 있지만, (11b)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법표지인 ‘-다’는 후행절에서만 나타나고, 선행절에서는 서법표지가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존칭표지 ‘-시’의 사용도 선행절과 후행절이 동일하게 작용하기 보다는 후행절에 의존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2) a. 할아버지는 테니스를 치고 주무신다.  
 b. 할아버지는 테니스를 치시고 주무신다.  
 c. \*할아버지는 테니스를 치시고 잔다.  
 d. \*할아버지는 테니스를 치고 잔다.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하였듯이, 한국어 ‘시’ 존칭표지의 사용은 화용적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존칭표지 ‘시’가 주어의 특성을 반영하는 일치표지로 이해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치표지의 관점을 받아들여 논의하고자 한다. (12d)에서 볼 수 있듯이, 존칭표지 ‘-시’ 일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12a)와 (12c)에서 볼 수 있듯이, ‘-시’ 일치현상은 후행절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2b)에서 볼 수 있듯이 후행절이 ‘-시’ 일치를 충족할 경우에는 선행절에도 ‘-시’가 선택적으로 삽입될 수 있다. 따라서 문법범주 실현에 있어 유연성을 보이는 경우, 두 절간에 그 문법범주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등중속 넥서스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문법범주가 후행절에 의존적인 경우 그 문법범주의 공유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경우를 또한 등중속 넥서스로 언급할 수 있다. 앞선 다른 연구에서처럼 절 간의 문법범주의 공유가 나타나는 경우를 단순히 중속구문이라고 지칭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구문들이 재귀대명사 사용상의 역행대명사화 사용 제약, 선행절이 후행절의 속으로 삽입되는 것에 대한 제약 등 대등접속의 특성들을 공유하기 때문이다(이관규 1999).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통사와 의미의 상호작용을 보이는 ‘-고’ 접속구문에 대해, 통사 중심의 접근법을 할 것인지, 의미중심의 접근법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RRG접근법은 통사중심의 상호작용을 제안하며, RRG의 정처와 넥서스 유형이 그 의미적 관계와 상호작용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 접속구문의 통사형

태적 넥서스 유형이 IRH 상의 의미적 특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3) a. 철수가 자고 영희가 잤다.  
 b. 철수가 추리닝을 입고 학교에 갔다.  
 c. 그 배가 암초에 부딪치고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13a)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는 시제의 공유만 이루어지는 등중속 넥서스 유형으로, 연속적 시간적 연쇄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반면 (13b)와 (13c)는 주어공유와 시제 공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중속 넥서스 유형으로 (13b)의 자연스러운 해석은 ‘한 채로’의 동시적 행위 의미로 사용되고, (13c)의 해석은 시간적 연쇄의 의미와, 인과적 관계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에 반해 권재일(2012)은 의미중심의 상호작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접속문을 의미관계의 관점에서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나누는데, 대등접속문은 나열, 대조, 선택 관계를 나타내고, 종속접속문은 인과, 조건, 목적, 평가, 결과, 첩의, 강조 등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2012: 172). 다음의 예를 보자.

- (14) a. 순우는 놀이터에 가고/갔고, 어람이는 언니를 따라 갔다.  
 b. 그 배가 암초에 부딪치고 곧바로 침몰했다.

의미관계에서 (14a)는 나열관계의 대등접속문의 예이고, (14b)는 인과와 시간적 연쇄 등의 의미 관계를 갖는 종속접속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의미관계에 기반을 둔 이론은 의미관계의 모호성과 중의성으로 인해 접속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의미관계에만 의존하기보다 통사적 이론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RRG에서의 절단위 접속의 표상인 절성층구조를 통해 접속관계를 보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그 의미와 통사의 상호작용은 IRH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 AND접속구문과 한국어 상응접속구문인 명사구 단위 ‘-와’접속구문과 절 단위 ‘-고’접속구문을 비교하여, 의미부와 통사부의 상호작용을 잘 설명하는 RRG의 JN 이론과의 상관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의 AND접속구문에 비해 한국어의 상응구문인 ‘-와’접속구문과 ‘-고’접속구문은 보다 의미 기반적 설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RRG의 IRH이론이 보다 긴밀하게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명사구 단위 '-와' 접속구문은 영어의 명사구 단위 AND접속구문과는 달리 유형적으로 AND언어와 WITH언어의 혼합형에 속하며, 이는 명사구 단위 '-와' 접속은 영어에 비해 의미적 동기에 의해 그 접속유형이 결정되는 구조임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어 '-와' 구문은 영어 명사구 단위 AND접속구문과 같이 등위접속 뿐만 아니라 등중속접속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등중속접속 내에서 공동해석과 분리해석의 선택 중에서 '-와' 구문에 의한 분리해석은 허용하지 않으며, '-자' 등의 다른 접속유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영어 절 단위 AND접속구문의 경우 전형적으로 등위접속만을 허용하지만, 한국어 절 단위 '-고' 접속의 경우, 영어와 같이 등위접속이 일반적이지만, 인과관계 혹은 시간적 연쇄 등의 의미적 연결이나 긴밀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시제 고유 주어 동일 지시 등의 요건하에서 등중속접속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 강영세. (2006). *and*-등위접속의 화용론. *어문학논총*, 25, 197-205.
- 권재일. (2012). *한국어 문법론*. 서울: 태학사.
- 김건희. (2014). 대등과 종속에 관한 일고찰. *인문논총*, 71(3), 117-157.
- 송경안 송진희. (2006). 등위접속구문의 유형론적 연구. *독일언어문학*, 31, 73-97.
- 이관규. (1999). 대등문 종속문 부사절 구문의 변별 특성. *선칭어문*, 27, 753-780.
- 조의연. (2003). 인지의미론에서 본 영어 상호-사건 관계 'and' 접속구문: 진정한 등위접속인가? *담화와인지*, 10(2), 177-195.
- Culicover, P. and R. Jackendoff. (1997). Semantic subordination despite syntactic coordination. *Linguistic Inquiry*, 28, 195-217.
- Feldman, A. (2002). On NP-coordination. In S. Baauw et al.(Eds.), *The Uil OTS 2002 Yearbook*(pp. 39-66). Utrecht, the Netherlands.
- Foley, W. and R. Van Valin. (1984). *Functional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 (2007). Coordination. In Shopen, T.(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omplex constructions*(pp. 1-5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 (2004). *Coordinating constructions*. Amsterdam: John Benjamins.
- Heycock, C. and R. Zamparelli. (2005). Friends and colleagues: plurality, coordination, and the structure of DP. *Natural Language Semantics*, 13, 201-270.

- Kwon, N. (2004). Syntactic and semantic mismatches in the Korean *ko*-construction. *WCCFL 23 Proceedings*, 101-114.
- Li, C. and S. Thompson.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 Li(Ed.), *Subject and topic*(pp. 457-490). New York: Academic Press.
- Sohn, H.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ssen, L. (2001). Noun phrase coordination. In M. Haspelmath, E. König, W. Oesterreicher and W. Raible(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pp. 1105-1111). Berlin: Mouton de Gruyter.
- Stassen, L. (2000). AND-languages and WITH-languages. *Linguistic Typology*, 4, 1-54.
- Talmy, L.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vol. 1). Cambridge, Mass.: MIT Press.
- Van Valin, R. (2001). The acquisition of complex sentences: a case study in the role of theory in the study of language development. *ms.* SUNY at Buffalo.
- Van Valin, R. (2005). *Exploring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Valin, R. (2014). *On the place of information structure in a grammar*. From <http://wings.buffalo.edu/linguistics//people/faculty/vanvalin/rrg>
- Yang, B. (1994). Morphosyntactic phenomena of Korean in Role and Reference Grammar: Psych-verb constructions, inflectional verb morphemes, complex sentences, and relative clauses. *Ph.D. dissertation*, SUNY at Buffalo.

### 박기성

46241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51) 510-2043

이메일: ksepark@pusan.ac.kr

Received on April 12,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28, 2016

Accepted on June 30, 2016